

## 단기 선교 장점과 단점

성경 본문	마태복음 10:5~16
요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16절).
찬송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과의 목표	단기 선교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참가자와 파송 교회 및 맞이하는 선교사와 현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단기 선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 I. 생각하기

1. 사람들은 왜 단기 선교에 참여하려 할까요?
2. 단기 선교에 대한 긍정적 시각 혹은 부정적인 시각들을 나누어 보고,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II. 생각 넓히기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숫자가 크게 성장한 배경 중에 하나는 비교적 용이한 접근성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직장을 포기하거나, 꽤 긴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선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시간과 재정의 낭비일 뿐이고, 현지인들에게는 유익보다 해악을 더 많이 끼친다고 하는 주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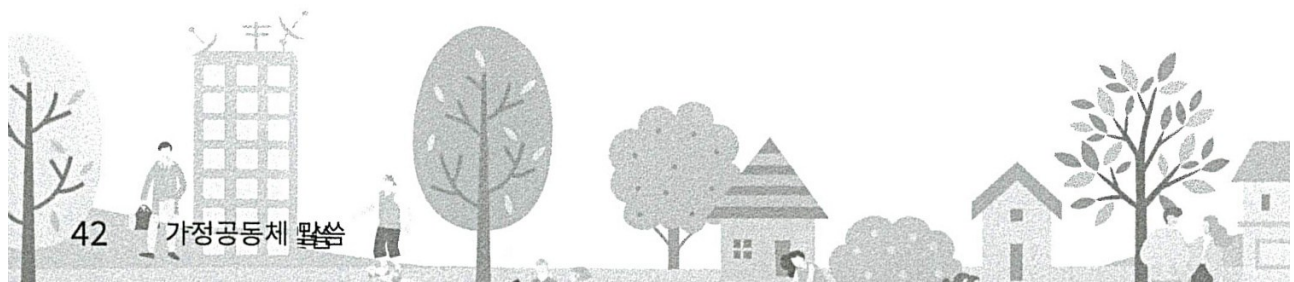
전적인 사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단기 선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 선교와 관련된 여러 부분을 고려하면서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별 참가자, 파송 교회, 현지 선교사, 그리고 현지 교회의 관점에서 본 단기 선교의 장단점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1. 개별 참가자

**장점:** 적지 않은 참가자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처음 밟게 된 선교 현장에서 신앙의 눈을 뜨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또한 단기 선교를 통해 타문화를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경험 자체가 자민족 중심주의, 즉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오해를 깨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교회의 장로나 집사가 단기 선교 팀장을 맡기 때문에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학생이나 청년들의 경우에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거치는 하나의 테스트 과정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단점:** 통계에 따르면, 선교 현장에서 받은 감동과 도전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sup>1</sup> 단기 선교에서 돌아온 후에 적절한 훈련이 따르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선교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저 좋았던 기억으로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선교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어떤 참가자들은 선교의 기회보다는 이국적인 장소를 여행한다는 사실에 더 흥분하기도 합니다. 문화적 불감증은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자신의 문화를 더 나은 것으로 보면서, 현지 문화를 열등하게 보는 생각을 고착시키기도 합니다. 방문하는 나라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인을 만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예약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 Kurt Alan Ver Beek, “Lessons from the Sapling: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on Short-Term Missions.” *Effective Engagement in Short-Term Missions: Doing It Right!* ed. Robert J. Priest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08), 475-495.



## 2. 파송 교회

**장점:**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열심은 전반적인 교회 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을 위한 불쏘시게 혹은 땀감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대학생이나 젊은 세대는 사역과 재정 면에서 아직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세계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참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점:** 어떤 교회들은 장기 선교사를 모집하고,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은 소홀히 하면서 매년 파송하는 단기 선교팀의 숫자로 자신들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단기 선교의 목표는 장기 선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일부 교회는 장기적인 전략이나 계획이 없이 해마다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미션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단기 선교는 다양한 나라를 경험하는 여행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3. 현지 선교사

**장점:** 과거에는 교회 성도들이 후원하는 장기 선교사를 몇 년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더 많은 교인들이 현장에서 선교사를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 역시 단기 방문팀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능과 경력과 기술을 가진 팀은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사역의 기회를 제공해 주며, 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단점:** 일부 단기 선교팀은 현지 선교사를 제쳐 두고 자신들이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현지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선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무엇이든 자신들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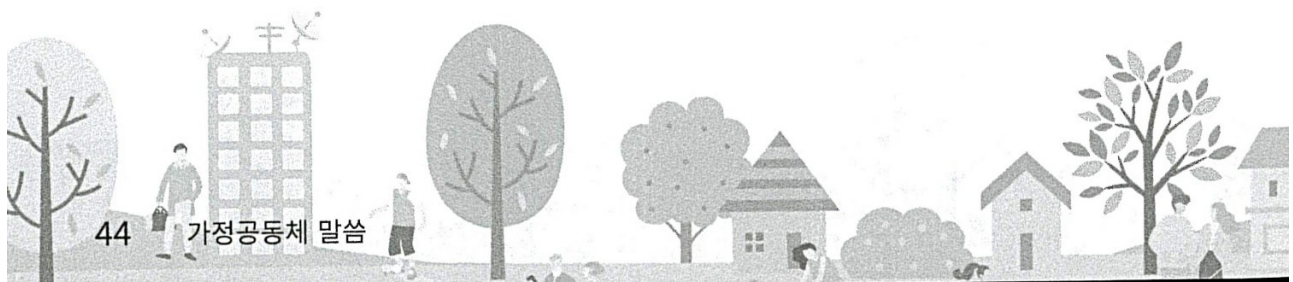


그 결과 팀이 떠난 뒤에는 선교사가 처리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후원하는 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보내려고 할 때, 선교사가 그 제안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가 선교 현장과 선교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준비되지 않은 팀을 보내는 것은 선교사에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될 뿐입니다.

#### 4. 현지 교회

**장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현지교회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단기 선교팀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전과 사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팀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타문화 교회 간의 관계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도구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현지 교회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특정한 사역을 단기 선교팀의 도움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와 지역들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온 형제 자매들의 방문 자체가 큰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단기 선교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하는 일은 서로에게 의미있는 일입니다.

**단점:** 참가자가 문화적 민감성이나 기본적인 언어능력, 그리고 사역 경험이나 배움에 대한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문하는 지역에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지역이 여러 교회와 교단 간의 경쟁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종류의 건물이 가까운 곳에 세워지기도 하고, 동일한 건물의 지붕은 한 해에도 몇 번이나 새롭게 칠해지기도 합니다. 중복 문제가 만연하고, 자원과 인력이 무책임하게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단기 선교가 지난 세기의 식민주의적 방식의 선교를 일정 부분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전한 상호 의존성 대신에 건강하지 못한 통제와 의존성이 자라나게 됩니다.



## 5. 지혜롭고 순결하게

단기 선교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장점들을 키우면서 한계와 단점들을 보완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10:5-16에서 선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송식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8절), 그리고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16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단기 선교의 목적은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함처럼 우리의 동기와 의도 역시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the Mission of God)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선교 활동을 이용하는 사람들 (the Mission of Me)이 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순수한 동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과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현지인과 선교사 모두에게 유익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그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다른 팀이나 교회에서 하는 좋은 본을 따르며, 여러 사람의 지식과 정보를 모을 때, 우리의 지혜가 더 깊어지고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에 대한 지혜를 더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으로 이 과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로 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단기 선교팀은 재정적으로 부유한 곳에서 빈곤한 지역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낫고, 더 큰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지인들이 매일같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마인드로 현지인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제도로 운영되는 사회에 있을 때는



유치원생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듣고 배  
우려는 마음 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 주도자가 아닌 후원자로 가야 합니다. 단기 선교는 현지 선교사와 교  
회 지도자들이 시작한 장기 전략과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팀은 파트너의 위치에서 현지인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일을 하  
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렇듯이,  
선교 현장에서도 돈에 힘과 권력이 따라오게 마련이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현지인들과의 신뢰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인식  
해야 합니다.
- 활동 재료와 방법을 현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공한 프로  
그램이라고 해서 현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와 방법이 현지화 될 때,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지역으로 반복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한 시간만큼  
서로를 알게 되고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의존성을 피  
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은 언제까지나 이방  
인으로 남고, 현지인들은 그들을 지켜보는 구경꾼으로 남게 됩니다.



### III. 생각살기

1. 자신이 생각하는 단기 선교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2.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유익한 단기 선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나누어 봅시다(참가자/파송교회/현지  
선교사/현지교회).

